

國語學史의 基本理解

金 敏 洙 著

新菊版 411 면. 1987. 10. 集文堂

金 完 鎮
(서울大 教授, 國語學)

I.

현재 생존하고 있는 국어학자 가운데 이 책의 저자 金敏洙 교수만큼 자상한 성격의 소유자를 달리 지목하기 어렵겠거니와, 그 자상함이 전형적으로 응결된 것이 이 著書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본래 한 권의 저서를 목표로 하여 쓰였다고는 할 수 없는 글들을 가지고 「國語學史의 基本理解」로 짜낸 편집의 솜씨에는 그저 탄복한다고 말해야 옳을 것이다. 물론 저자가 머리말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1년이 넘는 시간과 막대한 노력을 경주하였고 몇 편의 새 원고들로 연결의 고리를 삼은 것이기는 하지만 舊稿를 모아서 이처럼 새 著述로 탄생시킬 수 있는 능력이 아무에게나 있는 것은 아니다.

모두하여 41 편의 글이 이 책의 새 질서 속에서는 26 개의 항목으로 탈바꿈하고 있거니와, 내용을 따라 I. 緒論: 研究史, II. 近代以前, III. 近代, IV. 現代의 네 부분에 분속시키고 있다. 이 저서의 전반적인 모습을 개관하기 위하여 그 내용들을 순서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I. 緒論: 研究史

國語運動史

拔萃國語學史

魚允迪의 “國文源流年表”

II. 近代以前

古代의 言語神聖觀

奈麻 薛聰의 吏讀文에 대하여

崔行歸의 言語理論에 대하여

高麗時代의 韻書에 대하여

世宗과 訓民正音

訓民正音 創制의 始末

崔世珍의 「訓蒙字會」

柳信의 傳記

姜璋의 「東文字母分解」에 대하여

III. 近代

近代國語學史 序論

大韓帝國時代: 國語意識의 自覺

「國文正理」와 “韓語論”

最初의 國語文典

池錫永과 周時經

日帝強占時代: 겨레의 피로 지킨 國語

李奎榮과 李完應

朝鮮語學會의 國語運動

IV. 現代

現代國語學에 대한 研究態度

學風의 革新

國語表記法論爭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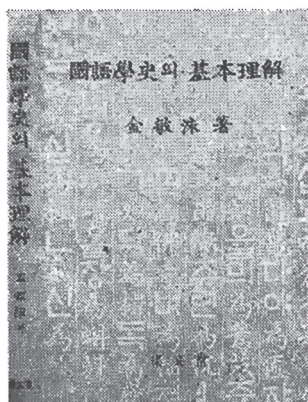
한글 波動

文法論爭

1960年代初의 國語學

II.

若泉 金敏洙 교수는 국어 문법론의 태두이지만, 요즘 학생들에게는 國語學史 방면의 연구로 더 친숙해져 있다. 그의 通史 「新國語學史」가 널리



읽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왕년의 名論 “大韓文典攷”(1957)를 위시한 여러 편의 논문들이 必讀의 것으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 거편들의 대부분이 지금의 저서에 수록되지 못한 것은 혹 기왕에 다른 저서에 수록된 것이 있기도 하지만 현재의 제목에 포함된 ‘基本理解’라는 제약이 그 주된 이유가 아닐까 한다. 그 거편들이 가까운 시일내에 논고나 논문집 등의 이름으로 출간된다면 지금의 책과 아울러 40년 金敏洙 國語學史의 眞面目을 한 눈에 바라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것이다.

이 서평에서 여러 편의 글에 대하여 일일이 내용을 살핀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오히려 지금의 평자가 생각하는 金敏洙 國語學史의 한 특징을 부각시켜 몇몇 논문의 내용에 미치는 것이 더 효과적이 아닐까 생각하거니와, 평자의 판단으로는 그의 학문을 ‘記錄’의 학문이라고 부르고 싶은 것이다.

資料의 수집과 정리에 대한 불요불굴의 집념이 文法史大系의 간행을 이룩하게 하였거니와, 한 장의 ‘記錄’ 周時經의 이력서를 찾아내기 위하여 무더운 한 여름을 지하실 창고에서 보냈다는 것은 유명한 일화가 되고 있다. 自筆로 된 이력서를 찾아내고야 마는 집념 속에 우리는 그의 학문과 인간을 발견한다 할 것이다. 이 책에 실린 글들 가운데서는 ‘柳 僖의 傳記’가 이에 가장 가까운 성질의 것이라 할 수 있겠거니와, 兪吉濬의 「大韓文典」에 대한 연구도(이 책에서는 ‘最初의 國語文典’이라는 제목으로 나온다.) 확실한 자료를 확보하였기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임을 상기하게 된다.

金敏洙 교수는 ‘記錄’을 찾아내는 名手일 뿐만 아니라 ‘記錄’을 남기는 데 있어서도 가히 天下無比라 할 수 있다. 제 4편에 수록된 ‘學風의 革新’은 그 아니고는 쓸 수 없었을 기록이다. 국어국문학회 초창기 5개년을 회고한 글이 인쇄 면수로 36 면이나 되는데 놀라기도 하거니와 자세히 들여

다 보면 이것이 결코 副題에 표방된 것과 같은 회고가 아닌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매일 매일 너무도 소상하게 기록하였기에 이러한 기술이 가능한 것이지 30년이 지난 뒤에 자료를 이렇게 수집하여 쓴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야말로 국어학사를 연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어학사를 산 인물, 살고 있는 인물이라고 하는 것이 이 분에게 어울리는 평이 되지 않나 생각한다. 제 4권에 수록된 다른 글들, 특히 ‘한글波動’과 ‘文法論爭’도 같은 맥락에서 평가될 수 있는 성질의 논문들이다.

Ⅲ.

저자는 서문의 서두에서 “학문에 대하여 쉽게 접근하고 깊이 섭렵하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우선 그 研究史의 이해에 있다고 하겠다.”라는 말을 하고 있다. 국어학사를 익히는 것이 국어학 그 자체에 입문하는 한 첩경이라는 명제를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물론 통사로서의 국어학사를 마쳤거나 또는 그것을 아울러 읽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이겠지만, 이 저서는 저자의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에 알맞은 글들을 많이 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말하자면 대학 학부 과정 또는 석사 과정에서 과하는 국어학사 과목의 부교재 또는 보충 교재로서도 활용될 수 있는 출판물로 여겨진다.

기성의 국어학자들에게도 이 저서의 간행은 반가운 일이다. 특히 논문들을 잘 정리하여 간직하고 있지 못하던 사람들에게는 金敏洙 교수의 별쇄본들을 다발로 선물받은 느낌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정성들여 改稿하였고 그것도 모자라 적지 않은 補註까지 첨가해 준 저자에게 그 노고를 치하하여 마지 않는다. *